

NEWS 전일빌딩245, 민주주의 열망 담은 예술공간으로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산업 1조2000억 들어 본격 추진

전남도가 광양만권을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반도체, 기능성소재 등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전남 지역 산업단지 108개소 중 약 98%가 분양 완료된 상황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순천·광양 일원에 총 396만㎡ 규모, 1조2000억원을 들여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적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최근 동부지역본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자문회의를 열어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전남도 산단개발과를 비롯해 전남연구원, 전남TP, 전남개발공사, 순천시, 광양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 구상, 기반시설 공급 방안, 입주 수요 및 경제성, 전략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이재명 대선'서 계속

출범식에서 '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제조업의 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책 분야로 꼽았다.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적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공감대 형성함으로써 국민통합에 필요한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창립 회원수가 500여명인 '성장과 통합'은 정책 의제와 실행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내세우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행사에는 문 구청장 외에도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의원 등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군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6월 11일까지 '나에게 민주주의는 000이다' 전시회 지역 예술가·오월어머니들 참여... 정치 풍자 작품도

5·18민주화운동의 증인이자 5·18사적지인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가 시민과 예술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예술행동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주시는 예술을 통한 사회변화의 메시지를 던진 'A4액션 2025: 나에게 민주주의는 000이다' 전시회가 오는 6월 11일까지 전일빌딩245 1층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A4액션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갤러리생각상자가 후원하는 예술 행동 프로젝트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중

대한 사회적 전환기를 지나며 시민·예술가들이 느낀 분노, 우려, 희망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당시의 아픔을 직접 겪은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함께 전시에 참여해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고근호, 신안희, 전혜옥 등 지역 예술가 15인의 회화·사진·드로잉 작품과 오월어머니 8인의 작품 38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월어머니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직접 들고 찍은 사진도 전시.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환 작가의 정치풍자화 전시인 '내가 뽑은 독재자' 시리즈 30점도 전시된다. 기표 도장을 활용한 독창적 작품으로, 서울 전시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개된다.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A4 액션 202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출품된 시민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작품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A4 액션 2025 온라인 플랫폼(www.a4action.io)'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전시회는 전국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전시"라며 "예술행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장을 넓히고 전일빌딩245를 시민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와 예술의 가치를 함께 조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실국장 정책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전 도청 서재발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우주항공청에 제2우주센터 유치 등 건의

사이언스 콤플렉스 예타 대상 선정 공동 협력 요청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운영반 우주항공청장과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대선 공약 핵심과제로 발굴한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제2우주센터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유치되도록 정부 정책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발사체 특화지구 육성 정책의 일관성 유지, 기존 나로우주센터와의 시너지 효과,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적 연계 기능 등 입지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우주항공청의 정책지원과 공동 협력을 요청했다. 사업 주요 내용은 우주과학 기반의 교육·연구·전시 복합지구 조성 등이다. 우주탐사 개발 역사 보존과 우주 체험시설을 통해 우주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비하고 민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도 2026년 국고 지원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시대 대비의 핵심 거점"이라며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도청 서재발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 미래발전 정책과제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편성한 53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도의 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4~5월은 지역 미래 전략산업의 정부 예산사업 반영을 위해 중요한 시기인데 대선 관련 선거법 때문에 행사에 제약이 많다. 이는 오히려 부처 건의활동에 좋은 기간일 수 있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역 미래 발전과 민생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적극행정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천터미널 복합화 민간투자 협력 절실”

광주상의 입장문...지역 중심축 회복 전환점 강조

광주 유스퀘어 일원에 추진 중인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민간 투자와 행정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이 단순한 터미널 재정비를 넘어 지역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소비·문화·관광의 중심축을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신세계그룹이 단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개발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과거 약 2조원이 투입된 부산 센텀시티 사례와 비교해도 광주에 대한 신세계의 장기적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화된 터미널 위로 47층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과 특급호텔, 업무·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 조성되며 터미널과 부지 내 모든 시설이 지하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상과 지

하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광주상의 의견은 이번 사업이 광주에 있어 '두 번째 기회'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신세계가 광천동 일대에 복합개발을 제안했지만, 행정 절차와 협의의 부족으로 무산돼 결국 대전으로 이전. '신세계 Art & Science'라는 프로젝트로 실현된 바 있다.

현재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0월 광주시로부터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협의에 임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공공성 확보와 행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본협상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광주상의는 "광주는 청년 유출, 소비 침체, 투자 위축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시점에서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는 도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광주시와 관계기관이 협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도, 美 관세 피해 최소화 총력전

조현동 주미대사와 대응 논의

전남도는 박창환 경제부지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전남 수출품 대응과 지역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대한 각 나라의 대응 및 미국 시장 등

향을 분석하고, 전남의 철강, 석유화학, 농수축산물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직면할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남도는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 전남의 전략 수출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은 우선 조정이 되도록 하고, 농수산물은 관세 부과가 유예되도록 힘써 주라고 요청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일 - 5. 11^일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금) 유익 페스티벌 5. 10(토) 나들이 5. 12(월) - 5. 18(일)